 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20. 7. 8. / (총 2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담 당 자	정 혜 은 한 연 수	전 화	044-202-3575 044-202-3576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김 성 훈 이 승 훈		044-200-2293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김 정 숙 이 성 경		044-202-3155 044-202-3615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과 장 담 당 자	이 재 식 류 성 훈		044-201-2151 044-201-2157
중앙방역대책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담 당 자	조 우 경 송 치 은		043-719-7260 043-719-934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방역 관리 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교회 방역 강화 방안, ▲식사문화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 ▲9급 공무원 공채시험 방역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가 국내 발생을 넘어서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시행해 해외 유입을 확실히 차단토록 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또한 서울의 한 자가격리자가 미국으로 출국 후 재입국한 사례와 관련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면 자가격리자 관리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 아울러 마스크가 가장 효과적인 감염 예방 수단인만큼, 실제 전파를 막았던 사례들을 모아 국민께 널리 홍보하여 개인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주문하였다.
- 한편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6개월여간 쌓인 환자 통계를 잘 분석하면 앞으로의 방역 정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별 특징,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인이 감염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것을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당부하였다.

1 교회 방역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교회 방역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 그간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회의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되고 있으나,
 - 교회 내 소규모 모임, 식사 등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다.
- 교회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 교회 핵심 방역수칙 >

책임자·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 필수 착용(성가대 포함)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 >

구분	해제 요건
요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종교행사*를 비대면(온라인 등)으로 진행 * 정규예배 및 각종 모임·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요건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 가능 인원 표시, 사전예약제 등 운영) ■ 좌석 간 간격 유지(최소 1m) ■ 마스크 착용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요건 1 또는 요건 2를 충족하는 경우 방역 수칙 준수 의무 해제 가능

□ 정부는 앞으로도 종교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방역지침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종교계에서 비대면·비접촉 예배를 실시하는 등 방역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신 데 감사드리며, 교회에 대한 이러한 조치는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한 종교활동을 지키기 위함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정은경 본부장)로부터 일상생활 활동별 위험도 평가 기준을 보고 받았다.

○ 정부는 고위험시설* 지정, 시설별 방역수칙 마련,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 이와 함께 다양한 일상 활동에 있어서도 국민 개개인이 방역의 주체로서 경각심을 갖고 감염에 취약한 행동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이에 정부는 일상생활의 활동을 12가지*로 분류하고 각 활동의 기본적인 특성과 활동이 이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위험도를 높음·중간·낮음으로 종합평가하였다.

*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 서비스, 종교활동 (예배·미사·법회 등), 독서·공부, 쇼핑(물건 사기), 게임, 관람

< 활동별 감염 위험도 평가기준 >

구분	낮은 위험도	중간 위험도	높은 위험도
주요 지표 마스크 착용 가능, 침방울 발생 정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음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침방울 발생이 많음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이 많음
보조 지표 타인 접촉 정도	타인과 접촉이 거의 없음	불특정 다수와 짧은 시간 접촉함	불특정 다수와 오랜 시간 접촉함
물품 공유 정도	개인 물품 이용	개인물품 사용 또는 다중 물품 공유 가능	다중이 이용하는 물건 공유

- 12가지 활동의 기본특성에 따라 활동 종류별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 ① 외식, 운동, 노래, 물놀이는 높음 위험도 활동, ② 종교활동, 모임·행사, 목욕·사우나·찜질, 미용·뷰티서비스는 중간 위험도 활동, ③ 쇼핑, 독서·공부, 게임, 관람이 낮은 위험도 활동으로 나타났다.
- 같은 활동이라도 상황이나 이용시설에 따라 위험도가 구체적으로 나뉜다.
 - (외식)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식거나 도구를 공유하는 뷔페 식사는 감염 위험이 높으나, 상시 환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식사하면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배달이나 포장하여 집에서 식사하면 위험도가 낮다.
 - (종교활동)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감염 위험이 높으나,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며 노래 부르기, 악수와 식사를 하지 않으면 위험이 중간 수준으로 낮아진다.
 - (쇼핑) 판촉 설명회 등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장시간 대화를 동반하는 쇼핑은 감염 위험이 높고,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장시간 대화하지 않지만,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와 오래 머무르는 물건 사기는 위험도가 중간 수준이고, 중소슈퍼·편의점 등 소규모 매장에서 짧은 시간 동안 물건을 사는 것은 감염의 위험이 낮다.
- 이러한 평가결과와 함께 ‘개인별 활동 자가점검표(붙임2)’를 통해 개인별 특성(고위험군, 직업 등)을 고려한 일상활동의 위험도를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자가점검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 정부는 국민이 일상 활동의 위험도를 스스로 살피고, 가능한 위험도가 낮은 활동을 하도록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3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1) 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2) 위생적인 수저관리, 3)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요건을 준수하는 식당을 '안심식당'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위생등급이 높은 식당이나 모범음식점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2만여 개를 목표로 '안심식당'을 지정할 계획이다.

- 앞으로 '안심식당'으로 지정된 식당에는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국 안심식당 데이터베이스의 온라인 포털 및 지도 앱 표출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 17억 원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더하여 안심식당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한식당으로 선정된 96개소를 서비스 제공 형태*별로 유형화해, 유사한 식당에서 참고하도록 지침을 제작할 예정이다.

* 뷔페 형태, 1인 반상, 한상차림 및 순차적 음식 제공 등 서비스 형태로 분류

○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의 방역지침 준수 강화를 위해 식당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이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6.4~7.14)

4 광주광역시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광주광역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향 조치(7월 2일)에 따른 이동량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휴대폰 이동량을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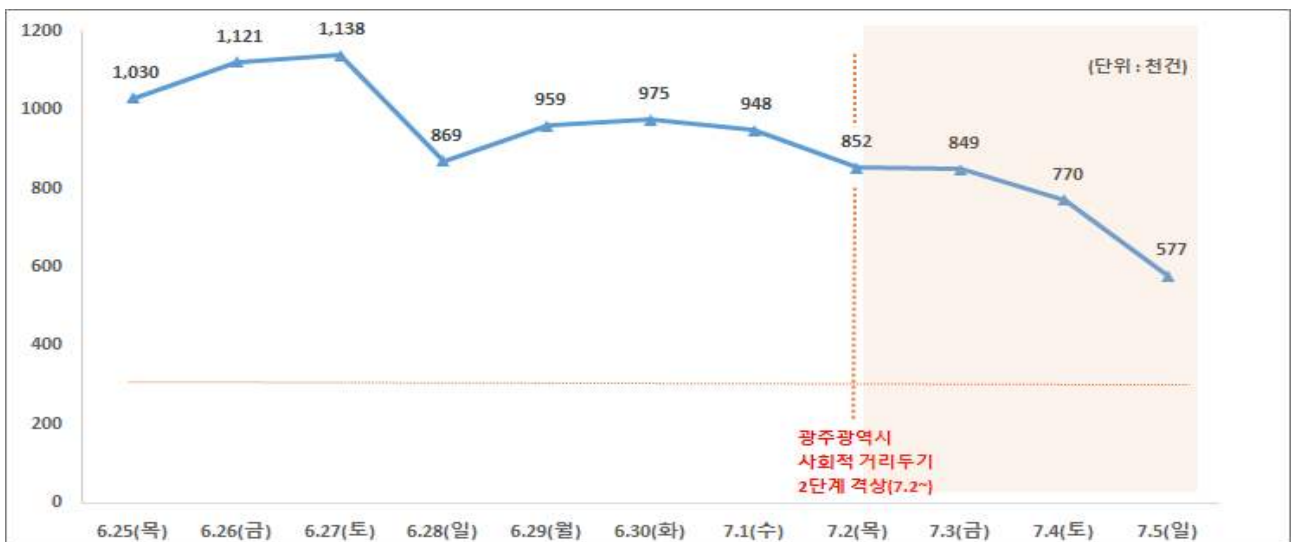
< 광주광역시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분석결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첫날인 7월 2일의 이동량은 전일(7월 1일) 대비 10.1% 감소하였고, 단계 격상 이후 4일째인 7월 5일은 단계 격상 직전보다 39.1% 감소*하였다.

* 거리 두기 단계 격상 직전일(7.1일, 94.8만 건) 대비 37.1만 건 감소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이후 휴대폰 이동량 >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광주시민에게 감사드리며,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다른 지역도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5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7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 5,791개소, ▲대중교통 3,729개소 등 40개 분야 총 21,109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거리 두기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345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경기에서는 PC방 301개소 등 3,802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57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광주에서는 종교시설 160개소 등 688개소를 점검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등 5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327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34개반, 569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47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08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7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8,83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1,58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7,243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606명이 증가하였다.

○ 친구 집 방문, 답답함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확인하여 2명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명은 검토 중이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578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94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7일) 입소 166명, 퇴소 194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01명

< 붙임 > 1. 활동 종류별 감염 위험도 분석 결과

2. 개인별 활동 위험도 자가점검표

3. 감염병 보도준칙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

2.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

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6.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8. 마스크 착용법

9.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붙임1

활동 종류별 감염 위험도 분석 결과

활동 종류별 위험도와 더불어, 대상자 특성에 따른 코로나19 취약 · 확산 요인 등의 개인 위험 수준 및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정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1 높은 위험도 활동 ※ 확진자 발생 규모는 추가 역학조사에 따라 변동 가능

행위	내용
외식	외식(식사)은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p>높은 위험</p> <p>▶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접촉하며, 술을 마시며 음식섭취 (예: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p> <p>역학조사 사례: 이태원 클럽 ※ 이용자 96명 등 총 277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체류 - 클럽 밖에서 줄을 설 때는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술, 음료 등을 마시고 춤을 추며 밀접 접촉 <p>역학조사 사례: ○○포차 (헌팅포차) ※ 동행지인 5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사람이 함께 장시간 체류 -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음주, 대화 - 다수가 큰소리로 대화하며 침방울 발생 <p>▶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공용으로 식기 또는 도구를 공유하는 식사 (예: 뷔페 등)</p> <p>역학조사 사례: ○○○○하우스(뷔페) ※ 이용자 14명 등 총 51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공간에 다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1~2시간) 체류 - 뷔페 이용 시 집기 등 공동이용 및 근접 접촉 - 행사의 사진 촬영 등 밀접 접촉
	<p>중간 위험</p> <p>▶ 실외 또는 상시 환기가 가능하며, 테이블 간 간격이 넓고, 다른 사람과 충분한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식사</p>
	<p>낮은 위험</p> <p>▶ 배달·포장하여 가족들과 집에서 식사</p>

행위	내용
운동	운동은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p>▶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격렬한 단체 운동 (예: 줌바, 태보, 스피닝 등 GX류 및 탁구 등)</p> <p>역학조사 사례: ○○○ 탁구장 ※ 이용자 42명 등 총 73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는 지하층으로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된 구조, 협소한 공간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또는 착용 미흡) 물품을 공용으로 사용 - 스포츠 활동 후 음주 또는 음식 공동섭취 - 여러 클럽 간 매주 교류 (탁구 대회) <p>역학조사 사례: 줌바댄스강습 ※ 강사 및 수강생 65명 등 총 116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강습 참석 - 큰소리로 구령을 맞춰 하는 단체 스포츠 활동 -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거친 호흡으로 많은 침방울 튀 발생 <p>역학조사 사례: 크로스핏 체육관 ※ 동시간대 이용자 5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 시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소규모 집단운동 - 밀폐되고(지하 2층에 위치) 환기가 어려운 구조 <p>▶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격렬한 운동 (예: 겨루기 운동 등)</p>
	<p>▶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혼자 하는 운동 (예: 근육운동 등)</p> <p>▶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어느 정도 가능하나 다중이 이용하는 도구 공유가 가능한 운동 (소독은 잘 이뤄진 경우)</p>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스포츠 활동 (예: 조깅, 산책 등)
노래	노래 부르기는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p>▶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노래 부르기 (예: 콘서트장 떼창, 성가대(합창단), 코인노래방·노래연습장에서 노래 등)</p> <p>역학조사 사례: ○ 코인노래방 ※ 동행자 1명 및 다른 손님 5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내 환기가 불량한 좁고 밀폐된 공간 (창문이 있으나 다른 물건이 막고 있어 실질적 환기 불가) - 노래 부르기 (침방울 발생 많음) - 확진자들이 일정 시간 이상 함께 체류 (20분~1시간) - 마이크, 노래 코드북 등 물품 공동 사용 <p>▶ 마스크 착용이 어렵지만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하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에서 노래 부르기</p>

행위	내용	
물놀이	물놀이는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높은 위험	▶ 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접촉하며, 다중이 이용하는 도구를 이용하는 물놀이 (예: 성수기 해수욕장 및 워터파크 등)
	중간 위험	▶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하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도구를 이용하는 물놀이 (예: 공용물품 이용하는 물놀이 등)
	낮은 위험	▶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한적한 곳에서, 개인물품을 사용하는 물놀이 (한적한 계곡 등)

2 중간 위험도 활동

행위	내용	
종교활동 (예배·미사· 법회 등 참석)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지만,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는 종교활동(예배, 미사, 법회 등 참석) ▶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노래를 부르고, 공용 책 등을 사용하는 종교활동 ▶ 예배·미사·법회 등 전·후에 악수·대화·모임·식사 등이 동반하는 활동 <div>역학조사 사례: ○○교회 ※ 교인 및 가족, 지인 등 총 37명 확인(조사중)</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상이 있음에도 종교의식 참석 - 찬양팀 마스크 착용 미흡 (침방울 튀 많음) - 본 예배 전후 소규모 모임 진행 - 교회 수련회 등 교인 간 모임·행사 진행 <div>역학조사 사례: ○○○교회 ※ 모임 참석자 총 24명 확진(조사중)</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 식사 등의 집단 활동 - 예배 중 마스크 착용하지 않은 사람 다수 있음 - 배식 형태의 식사 - 에어컨 가동하나 환기는 안함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하며, 노래 부르기·악수·식사 등은 하지 않는 종교활동 (예배·미사·법회 등은 특성상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머무름이 동반)
모임· 행사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지만,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	
	높은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오랜 시간 대화, 음식섭취 (예: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동호회 모임 등) <div>역학조사 사례: 자동차(○○) 동호회 ※ 모임 참석자 5명 등 총 6명 확진</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진자들이 오랜 시간(1시간 이상) 함께 체류 - 식사 및 음료 섭취하며 지속적 대화 - 단기간 소규모로 여러 번 모임 (2주간 3~8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모임·행사 (예: 방문 판매업장 등)
	중간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 두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대화를 오래 나누는 활동

행위	내용
목욕·사우나·찜질	목욕 · 사우나 · 찜질은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활동
	<p>높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대화를 하고, 음식 섭취를 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물건을 사용 (예: 목욕탕 탈의실 및 찜질방에서 음식섭취, 찜질방의 코인노래방기기 등 부대시설 이용) <p>역학조사 사례: ○○ 온천 (찜질방) ※ 방문자 5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되고(지하에 위치) 환기가 어려운 구조 - 마스크 착용이 하지 않고, 방문자가 오랜 시간(1시간 이상) 머무름 - 방문자들이 단기간에 재방문(1주에 2회)하여 추가 환자 발생 <p>역학조사 사례: ○○ 사우나 (목욕탕) ※ 직원, 방문자, 가족 등 총 5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어려움 -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이용자 간 밀접 접촉
	<p>중간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된 공간이지만,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고, 대화를 자제하는 상황에서 목욕·사우나·찜질
	<p>낮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하고 대화를 전혀 하지 않고 목욕 (예, 노천 온천 등)
미용·뷰티서비스	미용·뷰티서비스는 이용객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행동임
	<p>높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서 미용 서비스·뷰티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랜시간 대화를 하는 경우 <p>역학조사 사례: ○○○ 헤어샵 (미용실) ※ 직원, 방문자 총 2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용실 입장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장 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음 - 파마, 커트로 오랜 시간(2시간 이상) 머무름 - 미용실 내에서 10여 분간 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이용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머무르며, 다수가 만지는 책 등을 보는 경우
	<p>중간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지만 대화는 전혀 하지 않으나, 다른 사람과 장시간의 밀접접촉이 동반되는 서비스
	<p>낮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는 마스크 착용, 이용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또는 잠깐 벗기) 대화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접촉 시간이 짧은 서비스 이용

3 낮은 위험도 활동

행위	내용
쇼핑 (물건사기)	쇼핑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은 활동
	<p>높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장시간 대화를 동반하는 쇼핑(물건 사기) (예: 판촉설명회, 홍보관에서 장시간 물건 설명 등) <p>역학조사 사례: ○○웨이(방문판매행사장) ※ 참석자 42명 등 총 210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실내 공간 - 여럿이 모이는 행사 개최 - 다수의 방문자가 밀집하여 함께 노래와 식사 - 여러 번 재방문하여 잦은 재노출
	<p>중간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식행사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물건 사기 ▶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장시간 대화를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와 장시간 머무르는 물건 사기 (예: 사람이 많은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등)
	<p>낮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매장에서의 짧은 시간 물건 사기 (예: 중소슈퍼, 편의점 등)
독서 · 공부	독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은 활동
	<p>높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식사·음식 섭취를 하는 공간에서 독서·공부 (예: 카페 등) ▶ 밀폐·밀집되고 불특정 다수가 오랜 시간 머무르는 대규모 학원 (300인 이상)에서 공부
	<p>중간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머무르는 대규모 학원(300인 이하)에서 공부 ▶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어려워, 밀접 접촉이 가능한 공간에서 공부 <p>역학조사 사례: ○○학원 ※ 강사 및 학생 7명 등 총 56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 내에 창문은 있으나, 자연 환기를 하지 않음 - 학원 입실 시에는 강사와 학생 모두 마스크는 착용하나, 강의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강사와 학생 있음 - 소규모 강의실(2~7인 이내)로 강사와 학생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우며, 1m 거리 두기가 곤란 - 학원 내 강사와 학생이 장시간(2~3시간) 지속 체류
	<p>낮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독서·공부 * 음식·음료 섭취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경우 (예: 독서실, 도서관 등)

행위	내용
게임	<p>게임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은 활동</p>
	<p>높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음식을 먹거나, 소리 지르는 행동이 동반된 게임 (예: 밀폐·밀집된 PC방·카지노 등에서 음료·음식을 먹거나 소리 지르기) <p>역학조사 사례: ○○ PC방 ※ 이용자 11명 확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장시간 체류 - 여러 번 재방문(거의 매일 방문)하여 잦은 재노출
	<p>중간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대화하지 않고, 공용 물건 사용하며 함께하는 게임 * 소독이 된 공용 물건
	<p>낮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말하지 않고, 혼자 하는 게임 (음식·음료 섭취를 하지 않고 지속적 마스크 착용 가능)
관람	<p>관람은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침방울 발생이 많지 않은 활동</p>
	<p>높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밀집된 공간에서 공연을 관람하면서 음식을 먹고, 소리 지르는 행동이 동반된 관람 (예: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 공연 관람하면서 음료를 마시고 소리 지르기) ▶ 실내·외에서 불특정 다수가 오랜 시간 음식·음료를 섭취하거나 응원·구호를 외치는 활동이 동반된 영화·공연·스포츠 관람
	<p>중간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지그재그 자리 앉기 등) 이지만 불특정 다수와 오랜 시간 함께 관람하기 (예: 실외 스포츠 관람 등) * 응원·구호 금지 및 음식·음료 섭취 금지
	<p>낮은 위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고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 혼자 관람하기 (예: 박물관, 미술관 등)

붙임2

개인별 활동 위험도 자가점검표

질 문	예	아니오
□ 나의 취약요인 및 확산요인 알아보기		
1.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취약요인) ▶ 65세 이상 ▶ 당뇨, 만성질환(간, 신장, 폐, 심혈관),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 HIV 환자 등 만성질환이 있는 자 ▶ 고도 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2.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나요? (확산 위험도) ▶ 감염 취약 집단을 돌보는 직업(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종사자 및 가정방문요양보호사 등) ▶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하는 직업(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 종사자) ▶ 불특정 다수와 대면하는 직업(서비스업 등 종사자) ▶ 집단생활을 하는 경우 (예: 기숙사 거주, 교도관 및 군인 등)		
□ 내가 방문하는 시설에 대한 위험도 알아보기		
3. 환기가 불가능한 밀폐된 공간(지하, 창문이 작아 원활하지 않아 통풍 환기가 어려운 곳 등)인가요?		
4. 다른 사람과 지속적으로 2m(최소 1m)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공간인가요?		
5. 동 시간대에 다수(100명 이상)가 이용하는 공간인가요?		
6. 손 씻기, 소독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공간인가요?		
□ 내가 하는 활동의 위험도 알아보기		
7. 침방울이 많이 발생이 활동인가요? (예: 지속적으로 말하기, 소리 지르기,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구호 외치기 등)		
8. 활동하는 시간 동안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나요?		
9. 다른 사람과 1시간 이상 함께하는 활동인가요?		
10.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물건을 공유하는 활동인가요?		
위험도 종합평가: '예'의 개수		

※ 위험도 종합 평가: 낮음(3점 이하), 중간(4~7점), 높음(8점 이상)

<자가점검표 평가 결과>

위험도	평가
낮은 위험 (3점 이하)	축하합니다! 평가 결과 저위험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고, 감염의 위험도는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으니, 방역 수칙 준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위험 (4~7점)	위험도 평가 결과는 보통입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염의 위험은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밀폐된 공간(주거 공간 제외)에서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 방역 수칙 준수에 힘쓰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높은 위험 (8~10점)	위험도 평가 결과, 매우 높습니다. 당신은 감염에 취약할 수 있으며, 직업 특성상 다수의 사람을 만난다면 감염 확산 위험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 높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밀폐된 공간(주거공간 제외)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사람 간 거리를 2m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침방울이 발생하는 음식, 음료 섭취, 지속적인 대화, 소리 지르기, 노래 부르기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손 씻는 습관 잊지 마세요!
공통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 개인 방역 수칙 ※</p> <p>① <u>지속적으로 사람 간 2m 거리 유지</u>하기</p> <p>② 다중이용시설 및 <u>거리 두기가 어려운 실외에서도</u> <u>항상 마스크를 착용</u>하고, <u>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는 자제</u>하기</p> <p>*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거나 스스로 마스크 제거가 어려운 사람, 24개월 미만 유아는 마스크 착용 제외</p> <p>③ 식사 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한 후 <u>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u>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소독하기</p> <p>④ <u>기침 예절</u> 지키기 (기침,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 가리기)</p> <p>⑤ 매일 2번 이상 <u>환기</u>하고, 주기적으로 <u>소독</u>하기</p> <p>* 잊지 마세요! 당신이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1번 또는 2번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해요. 환기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가 어려운 장소는 최대한 방문하지 말고, 불가피한 경우 침방울이 될 수 있는 행동은 최소화해주세요.</p>

붙임3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